

# 무협, 자카르타서 한국 의료·미용기술 전파

## 'K-메디&뷰티 프리미엄 로드쇼' 개최

한국무역협회는 오는 10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강남구청과 공동으로 'K-메디&뷰티 프리미엄 로드쇼'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날 무역협회는 현지 웨라톤 호텔에서 우리 의료기술의 우수성을 알리는 세미나를 시작으로 강남구 소재 15개 의료기관들과 인도네시아 경제단체, 의료 관련 협·단체, 여행사 협회, 모델 에이전시, 금융권 담당자 등과의 비즈니스 상담회를 동시에 진행했다. 상담회에는 인도네시아 전역에 약 500여개의 드러스토어 체인을 보유한 키미아 파마(Kimia Farma), 메디컬투어 1위 여행사 PT. HIS Travel 등 현지 기업 50개사가 참가해 우리 의료기관들과 1대1 상담을 진행했다.

이미용 제품 제조업체인 '모담코리아'는 이날 상담회에서 만난 현지 바이어와 50만 달러



9일 권도겸 무역협회 자카르타지부장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강남구와 공동으로 개최한 '2018 K-메디&뷰티 프리미엄 로드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규모의 현장 수출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오는 10일에는 리츠칼튼 호텔에서 현지 미디어를 초청해 강남구가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무료나눔의료' 정책을 소개하고 선천성 구순구개열 기형장애를 가진 인도네시아 청년의 무상치료 사례 등을 소개할 예정

이다.

또 지난달 28일 술라웨시에서 발생한 지진과 쓰나미의 여파로 고통받고 있는 해당 지역 거주민 대상 무료나눔의료 확대 계획도 발표한다.

/김유진 기자 ujin6326@metroseoul.co.kr

# 국감 '증인실명제'로 검증 기대



## 기지 수첩

정연우 (산업부)

국정감사 시즌을 맞아 해마다 반복되는 대기업 대표들의 '졸소환'이 이어지고 있지만 '기업 망신 주기의 장'으로 여겨졌던 국감이 올해는 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증인실명제'가 도입되면서 재벌 총수 대신 실무 경영진을 대거 증인으로 채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증인실명제는 지난해부터 도입된 제도다. 증인을 부른 사람과 철회 이유, 과정이 모두 노출된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의원이 특별한 이유 없이 대기업 총수를 부르기에 부담이 크다.

9일 국회와 재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무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17개 상임위원회 상당수가 증인과 참고인 명단을 확정했다.

재계 총수들로는 400억원 정부 지원금에 대한 부실 운영 의혹을

받고 있는 최정우 포스코 회장과 노조 탄압 의혹을 받고 있는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됐으며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등이 명단에 포함됐다.

주목할 만한 것은 이번 국감에는 그동안 단골증인으로 나왔던 이재용 부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 구광모 LG 회장, 최태원 SK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가 채택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를 두고 국회 일각에서는 '기업인 망신 주기'에 대한 여론의 비판과 함께 이런 방식의 국감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또 경제 불황 조짐에 최악의 고용 부진을 겪는 상황에서 국회가 재벌 총수의 증인 채택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국감은 정책검증의 장이어야 한다. 재계 총수들에 대한 호풍과 망신주기 식의 국감은 국민이 원하는 게 아니다. 국감은 오는 10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된다. 국회는 주어진 '귀한 시간' 동안 철저한 분석으로 기업검증에 힘써야 할 것이다.

/ywj964@



## 중기중앙회 사랑나눔재단 印尼 지진피해 2000만원 전달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이 지난 8일 대한적십자사를 방문해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섬의 지진피해 복구에 써달라며 성금 2000만원을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국내뿐 아니라 앞서 네팔과 에콰도르 지진피해, 라오스 댐붕괴 사고 등 국외 재난과 국제구호활동에 꾸준히 성금을 전달하며 중소기업계의 사회공헌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왼쪽 세번째부터) 적십자사 김윤희 부회장과 재단 서석홍 이사장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오늘의 운세 10월 10일 (음 9월 2일) http://www.saju4000.com

- 48년생** 판단력이 흐려지는 날이니 세심한 주의가 필요. **60년생**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니 알아서 판단. **72년생** 욕심이 과하면 일이 성사되기 어렵다. **84년생** 후배가 치고 올라오니 서글프다.
- 49년생** 과한 운동을 피하고 심신의 안정을 취하자. **61년생** 낙숫물에 비위가 쏠리는 법이니 꾸준한 노력이 필요. **73년생** 친구가 웃을 일을 만들어 준다. **85년생** 보기 싫은 사람도 아쉬울 때가 있다.
- 50년생** 사소하게 시작된 언쟁이 커질 수 있다. **62년생** 다정다 병이니 배우자에게 지나친 간섭은 금물. **74년생** 유혹이 많은 날이니 부디 자중자해야 할. **86년생** 행복의 원천은 가정에 있으니 가족의 평화가 우선.
- 51년생** 새로운 인연으로 정보를 얻게 되니 이득. **63년생** 아직은 때가 아니니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75년생** 초대받은 손님으로 환영을 받으니 기쁘다. **87년생** 용이 여의주를 얻은 격이니 뜻한 바를 이룬다.
- 52년생** 금전 문제로 속상할 일이 생긴다. **64년생** 2보 전진을 위해 1보 후퇴는 기본 마음으로. **76년생** 마음이 울적해도 웃어야 복이 들어온다. **88년생** 인생은 새옹지마이니 작은 일에 일희일비하지 마라.
- 53년생**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좋다. **65년생** 변화의 날이니 옷차림이나 신발에 신경을 써 보자. **77년생** 사랑에도 약간의 망상은 필요하다. **89년생** 우물을 찾았으니 두레박은 직접 만들면 된다.

- 54년생** 가는 사람도 잡아야 할 때가 있다. **66년생** 그물을 치지 않고 고기가 잡히기를 기대하지 마라. **78년생** 걱정이 해소되고 마음이 즐거울 날. **90년생** 눈치가 빨라야 절에 가서도 새우전 얻어먹는다.
- 55년생** 모심으러 갈 때는 정화를 신어야 한다. **67년생** 지나간 인연으로 마음이 혼란하니 중심을 잡아라. **79년생** 아랫사람의 말을 경청할 줄 알아야 한다. **91년생**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 법.
- 56년생** 바람이 불어대니 마음이 허전하고 아프다. **68년생** 상대의 작은 실수는 덮어 주는 것이 나에게 유리. **80년생** 충고도 사람을 봐가며 해야 한다. **92년생** 마른 눈에 물들어 오듯이 일이 잘 해결.
- 57년생** 자손의 방문으로 하루가 즐겁다. **69년생** 강을 건넜다고 배를 소홀히 해서 큰 낭패를 본다. **81년생** 불만이 있어도 내색을 하면 더 피곤. **93년생** 행운은 우연히 오는 게 아니니 항상 준비하고 노력.
- 58년생** 버틸 수 있다면 아직 한계는 아닌 것. **70년생** 바람이 분다고 다 흔들리는 것은 아니다. **82년생** 병이 왔으나 약도 주여지지 실망은 금물. **94년생** 남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나 사비도 있을 수 있다.
- 59년생** 검은색 옷을 입을 일이 생긴다. **71년생** 광기와 천재성의 차이는 성공으로만 측정된다. **83년생** 원숭이따위의 거리가 손조름게 이루어진다. **95년생** 생발전이 느려 답답할 수 있으나 현상유지가 오늘은 최선.

# SUDOKU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듬뿍! 아이큐 쑥쑥!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세로 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8					6			
	2	6		3	5			
		5	9	8				
3	6				8		9	
	2						5	
9	4				3			2
		1	7	2				
		7	8		4	1		
6								8

			8	7		2	6	
	1		6		2			8
4	6							9
3		1			4			
8			2	7			4	
	4	9		1	6			

스도쿠 정답

8	2	6	5	9	1	7	3	4
3	6	5	9	8	7	2	4	1
9	4	1	7	2	8	6	5	3
6	2	8	3	4	1	9	7	5
5	7	3	1	6	8	2	4	9
4	6	7	8	9	5	1	3	2
1	8	9	2	3	4	6	5	7
7	5	4	1	6	3	8	2	9
2	9	8	6	7	5	4	3	1
1	3	7	2	8	9	5	6	4

문제 제공 = 보너스

# 김상회의 4분기 부자 욕하지 말고 배우야

진정한 부자는 돈 이야기 하는 걸 꺼린다. 일부에서는 실례로 여기고 심하면 천박하게까지 생각한다. 옛날부터 돈은 더러운 것이라는 인식이 전통처럼 내려온 영향도 있다. 그래서인지 사람들은 돈에 대해 이중적 잣대를 가지고 있다. 돈을 많이 갖기 원하면서 한편으로는 부자를 욕한다. 우리사회에서 부자의 이미지는 대부분 부정적이다. 갑질 과시, 향락 술판 이런 것들이 부자의 이미지로 굳어져 있기도 하다. 이러한 이미지만 가득한데 사람들은 자기도 부자가 되고 싶어 한다.

팔자상담을 오는 사람 중에는 자산가가 많다. 보통 사람들에 비하면 아주 큰 부자들이다. 그런데 그들 대부분은 인성이 훌륭하다. 돈이 많고 빠가지도 않고 가족에게 충실하며 생활도 성실하다. 타인에게 깽뎛고 어려운 곳에 기부도 아낌없이 한다. 돈 없는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운세는 재물운이다. 돈을 벌었으면 하는 생각을 한다. 심지어는 전혀 노력하지 않고 단숨에 큰돈이 들어오길 원한다. 큰돈이 혹 들어오는 걸 좋은 운세라고 생각하고 복이라고 여길 수 있다. 그런 생각 자체가 착각임을 알아야 한다. 사주가 좋고 운세가 풀려도 한방에 터지는 복은 없다.

큰돈을 번 사람들 중에는 재물운이 부족한 경우도 많다. 그들은 가난할 때도 부자를 욕하지 않았다. 욕하기는커녕 존경하고 배우려고 했다. 부자를 보면서 돈을 버는 방법을 어떻게든 알아보려 노력했다. 쉬운 노력을 한다. 그 부자들이 운세를 바라고 누워만 있었다면 가난뱅이를 면하지 못했을 것이다. 부자가 되고 싶으면 사주나 운세타령을 하지 말아야 한다. 다른 탓을 하는 사람은 사주가 좋고 운세가 뛰어나도 부자가 되지 못한다. 오히려 운세만 날려먹을 가능성이 더 크다. 부자가 되고 싶으면 이유 없이 부자를 욕하는 것부터 고쳐야 한다. 욕하기 전에 그들이 어떤 노력을 했고 어떻게 큰돈을 벌었는지 살펴봐야 한다. 사주와 운세를 타하기 전에 자기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돌아보는 마음을 갖는 게 우선이다. 일은 안 하면서 로또는 항상 바라고 당첨되기도 전에 평평거리며 돈 쓸 궁리를 하고 있다면 돈을 대하는 바른 자세가 아니다. 그런 사람이 돈이 없는 건 운세 탓이 아닌 것이다. 돈을 벌고 싶다면 돈에 대한 이중적 잣대를 버려야 한다. 운세가 나빠서 그렇다고 한탄하는 버릇도 버려야 한다. 돈 많은 부자를 욕하지 말고 그들에게 배우는 마음 가짐이 필요하다. 부자가 되고 안 되고는 나의 탓이 가장 크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편집국장	이창규
인쇄인	중앙일보(주) 김교준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4054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0158호